광주시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성과'

지난해 6740만 달러 투자유치·라이선싱 계약…전년 대비 3배 ↑

국내외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이 민선 7기 들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각종 수상실적을 내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138건, 6740만 달러(743억원)의 투자유치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262억원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대표적으로 광주 업체인 스튜디오버튼의 '쥬라기캅스 시즌3'이 대교인베스트먼트와 오로라월드로부터 15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몬스터스튜디오의 '브레드 이발소'는 넷플릭스와 7만5000달러의 전세계 배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업체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상실적도 이어지고 있다.

몬스테스튜디오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콘텐츠 대상에 '체리툰'이란 작품을 출품해 캐릭터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 업체인 핑고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광주 무등산의 4계절과 전일빌딩245, 도청의 캐릭터'란 작품으로, 2020광주콘텐츠코리아랩 G.Idea 광주창작 굿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온닷은 '에어베틀미션'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가치보증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기도 했다.

광주시는 2004년부터 시장 주도형 문화콘텐츠 제작 및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유통·소비의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민선 7기 들어 각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쥬라기 캅스 시즌 3'

'브레드 이발소'

특히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창작·제작 사업화를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과 기획창작스튜디오는 지역 업체들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고 있으며, 시장주도형 실감기술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체험형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등도 업체들의 성장을 돕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국내외 사업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콘텐츠기업의 투자유치와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들어 도로 파임 8200건 광주시, 특별대책반 가동

해빙기 급증한 도로 파임(포트홀) 정비를 위해 광주시가 24시간 대책반을 가동한다.

광주시는 4일 "5개 반, 25명으로 포트홀 정비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많은 눈과 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월에만 광주에서 82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 폭 20m 이상 544㎞ 구간은 광주시, 20m 미만 1천148㎞는 자치구에서 맡아 정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포트홀로 생긴 타이어 파손 등 피해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을 통해 발생 시 신속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포트홀 발생 현장을 찾아 보수 상황을 지켜봤다.

이 시장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긴급 복구에 집중하고 이달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해 도로 재포장, 균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포장 보수 등 본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3년 연속 전국 최다

목포 샘골마을 등 22곳 선정

전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전국 96곳 가운데 22개소(23%)가 선정돼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21개소, 2020년 29개소가 각각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는 전남 33개 마을 등 전국 153개 마을이 신청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개발이나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 휴먼케어 사업 ▲노후 불량 주택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자활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등이다.

목포시 죽교동 샘골마을, 신안군 하의면 옥도마을 등 올해 선정된 마을에는 개소 당 도시지역 30억원, 농어촌지역 15억원 내외의 국비가 4년간 지원된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전남의 도시와 농어촌지역 정주 여건을 편리하게 개선해 살기 좋은 지역,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동구 계림동 649번지 일원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로화단 조성용 봄꽃 출하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공급할 봄꽃을 살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로화단 조성용 팬지, 비올라, 패랭이, 금잔화 등 봄꽃 12종 총 45만본을 공급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주 하남산단에 개소 하루 1200벌 세탁 가능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세탁소가 광주 하남산단에 문을 열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하남산단 내 혁신지원센터 부지에 건립된 작업복 세탁소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난달까지 건립 공사와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 운영 중이다. 연면적 223㎡ 부지, 지상 3층 건물에 세탁실, 건조실, 사무실 등이 마련됐다.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미싱, 자동다리미, 화물용 차량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 최대 1200벌을 세탁·건조할 수 있다.

세탁비는 한 벌당 500~1000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지역자활센터가 위탁을 맡아 12명의 인원이 수거, 세탁, 배송, 관리, 사무까지 모든 세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 위치 등의 문제로 건립까지 2년여가 소요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연중 무휴 돌본다

전국 최초 24시간 돌봄 서비스 40명 대상 우선 모집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최근 공모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지원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됐다.

복지관들은 오는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2일에는 개소식도 열기로 했다.

이용자는 주간 활동 다중지원 사업 6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4명(남자), 주말·휴일 돌봄 지원 30명 등 40명을 우선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으로 도전적 행동이나 폭력 성향 때문에 시설 이용을 거부당해 가족 외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광주시는 오는 8~12일 광산구 대안공간 '공공연'에서 돌봄 전문인력 양성 기본 교육도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발달 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돌봄 강화 등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